

발행처 :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 김동규 미카엘  
 주소 :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 02 8756 3333

# 시드니가톨릭신문

##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 김동규 미카엘  
 보좌신부 : 전상현 스테파노  
 고해신부 : 홍 야고보  
 수녀 : 이호순 첼레스티나  
 장금자 메리노  
 사목회장 : 정영수 요한

VOL. 104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뵈게 되리라. &lt;시편 11, 7&gt;

2014년 2월 1일 (월간)

## “교우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해 온지 어  
 연 4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 울고 웃  
 었던 여러분들과 작별의 인사  
 를 하려고 하니 온갖 감정이 교  
 차하며 고마웠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화났던 일, 이런저  
 런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고 좋았던 일들보다  
 는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더  
 많았고 부임초기에 여러분과 함  
 께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도 많이 남습니다.

또한 제가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점은 서로 칭찬해 주며 서  
 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며 살기  
 에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왜 이렇게들 할까? 하는 점입  
 니다. 그것도 남을 헐뜯는 일로  
 본당 신부는 물론 모든 교우들  
 을 힘들게 만들면서 말입니다.

저는 23년 전 사제서품 받던  
 그날부터 하느님의 대리자로  
 기름부음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  
 려 노력하였고 피를 나눈 가족  
 보다 제가 함께하는 본당 교우  
 들이 제 자식이고 제 형제며 누  
 이며 가족이라 생각하며 살아왔  
 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 호주  
 교포사목을 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이해 할 수 없는 고통들  
 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과연 이  
 들이 어떻게 내 가족이어야 하

고 누구보다도 더 서로를 사랑  
 해 주고 이해해 주고 함께 해  
 야 할 교우들이 왜 이렇게 하는  
 가? 참으로 많이 생각했고 주님  
 께 부르짖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통으로 아파  
 할 때 저를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며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안타까워 애쓰는 많은 분들과,  
 선종하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  
 아들 신부가 시드니의 많은 교  
 우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믿  
 고 고마워 하였던 어머니와, 말  
 없이 기도로 함께 해 준 가족과  
 교우 분들이 있었기에 모든 것  
 을 훌훌 떨어버리고 처음 이곳  
 에 부임해 왔던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작별을  
 하면서 이런 감정과 말을 하니  
 솔직한 제 마음은 아직도 많이  
 속상한가 봅니다. 정말 힘들었  
 을 때 차라리 어딘가에 화풀이  
 를 하거나 왜 그렇게들 사느냐  
 고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퍼부  
 었으면 가슴이라도 후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흔 번  
 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과 교회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  
 라 살아가려니 더 힘들지 않았  
 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켜 보니 이 모든 것이  
 저를 아버지환의 진흙탕 구렁이  
 에서 이끌어 준 구원의 말씀이  
 었고, 아픔을 통해 저를 더욱 성  
 장 시키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  
 며 자비의 눈으로 남을 볼 수 있

게 해주는 것이었음을 새삼 깨  
 단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고 소임을 잘  
 맡취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  
 사하며 웃으면서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왜곡되었던 모든 일들도 시드  
 니 대교구로부터 그 진위가 밝  
 혀졌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 자신은 언제나 하느님 안에  
 서 떳떳하게 자유롭게 살아 왔  
 습니다. 만일 제가 사제가 아니  
 고 세속인으로 살아왔다면 아마  
 너무 힘들어 이 모든 것을 감당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는 제 사제직을 보호해 주셨고  
 버틸 힘을 주셨기에 지금 용서  
 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제 주교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소임을 마치고 떠나  
 갑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정리하  
 고 치유해야 하겠습니다. 하느  
 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을  
 세례를 받던 그때처럼 다시 아  
 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기도로  
 청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  
 리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십  
 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  
 님 안에 한 가족이며 가족안의



상처는 가족이 다시 품어 줌으  
 로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저 또한 여러분의 사랑과 기  
 도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프게 했던 분  
 들에게 해민 스님이 하신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  
 리가 같이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  
 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려 드리  
 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  
 도를 해 주고 싶습니다. ‘하느님  
 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길 축  
 복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 때문에 알  
 게 못르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신 교우 여러분에게 이 지  
 면을 빌어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

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일들  
 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끝까지  
 믿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천상병 시인  
 의 ‘귀천’ 내용처럼 4년 동안 이  
 곳에서 사목 잘 끝내고 가서 시  
 드니가 아름다웠다고 말하게끔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  
 랑합니다.

시드니 본당 교우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시드니에서의 소임을 마치며  
 김동규 미카엘 신부 -

###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 “사랑”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애정을 가졌다는 감정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창조를 위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시도입니다!

#### “길 잃은 양”

요즘은 목자가 아흔아홉 마리 양을 놔두고 길 잃은 한 마  
 리 양을 찾아나서는 성경 속 비유와 정반대 상황이지요.  
 한 마리만이 우리 속에 있고 아흔아홉 마리가 길을 잃고  
 밖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흔아홉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 한국 천주교의 접 경사!

“1 추기경 탄생, 2 교황님 방한, 3 124위 복자 시복”

한국교회와 사회가 세 번째 추기경을 선물 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1월 12일 19명의 추기경단을 임명한 중에 한국의 염수정 대주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염수정 대주교는 오는 2월 아시아 첫 추기경이었던 고 김수환 추기경(1922~2009)과 이후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추기경이 된다. 또한 서울대교구 교구장 출신 첫 추기경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은 각각 마산교구와 청주교구 주교였을 때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서울대교구에는 229개 성당이 속해 있으며 신자 수는 140만 명에 이른다. 가톨릭의 수 백 개 교구 중에서도 규모 면으로 손꼽힌다. 염 대주교의 추기경 서임은 서울대교구가 규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주교 내에서 그 위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염 대주교는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첫 추기경이기도 하다. 18세기부터 자생적으로 뿌리내린 한국의 천주교가 내부의 사제 육성 시스템만으로 추기경을 배출한 것도 각별하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문장〉

새 추기경 탄생은 신자 수 536만 명(2012년 교회통계),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지속적인 성장과 아시아 및 세계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차지하는 위상에 걸 맞는 결실이다.



세계 역사 안에서도 이례적으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여 큰 성당을 이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제 세계교회 안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젠 보편교회와 발걸음을 맞춰 교회 공동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함양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글로벌 사회 복음화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때다.

염수정 (71 세례명 안드레아. 사진) 대주교는 13일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앞마당 앞에서 열린 임명축하식에서 “몹시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린다. 부족한 사람이니 많은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는 교회를 말씀했다”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참된 목자(요한 10, 11)의 자리가 어찌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교회의 길은 어디인가! 바로 백성의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Vox Populi, Vox Dei)로 들리는 바로 그곳이다. 거기에 목자가 함께 할 때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한 10, 3)가 될 것이다. 넉넉한 품으로 사회 전반을 품어줄 이 시대의 큰 어른이 되시길 바란다.

## 김민수 신부님 송별미사

1월 5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김민수 야고보 신부님의 송별미사가 있었다. 3년간 본당을 위해 수고하시고 새로운 사목지로 (중국 남경) 떠나신 김민수 신부님은 호주에서의 생활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이민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살며 내 나라를 떠난 교포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끼고 간다고 말씀하셨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동방박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별을 보고 수 천 킬로를 걸어간 것처럼 서로에게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별이 되어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힘들고 미묘한 삶 가운데 그 사람만 없



으면 살 것 같던 그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별이 될 때가 있으며, 하느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짐을 믿고 마음에 희망의 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당부하셨다.

## 2

### “프란치스코 교황님 한국방문 하실 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해 8월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이 한국 관계당국으로부터 8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초청을 받았다”며 “이에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아시아로 가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시아 방문을 결심한 건 지난해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 때였다.

당시 교황님은 “전임 교황이 아시아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소외감을 느낄 아시아 신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오는 8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 6회 아시아청년대회”에 초청을 받아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이번 한국방문이 성사되면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찾은 이후 25년 만의 교황 방한이 된다.

역대 교황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각별했다.

한국은 세계 천주교 선교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생적으로 신앙을 받아들

였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순교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임 중 두 번 한국을 방문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땅에 입맞춤을 하며 순교자들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기도했다. 역대 교황 중 가장 소탈하고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방한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청년대회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교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황님의 한국방문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방문 여행객의 수는 연 1100만명으로 (호주는 연 7700만명) 그 중의 7%가 성지관련 방문객인데 교황님이 오시면 한국 성지순례 방문객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한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베데스다 천연 건강즙**

정성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한끼 식사값으로 가족의 **한달 건강**을 챙기세요

베데스다는 無설탕 無방부제 無색소 원칙  
오직 호주에서 재배된 신선한 야채와 과일만을 사용합니다.

시드니 전지역 배달가능합니다.

2 Wallace St Sefton 2162  
**9786 4945 / 0425 677 878**

ABN 58 089 086 779  
L/C 21A5002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수시 출발 / 해외 패키지  
2인 이상 여수 익스포 프로그램 /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Shop1A, 62-74 Beamish St. Campsie 2194  
이스트우드점 9787 6633 8A, 38 Rowe St. Eastwood 2122

24시간 출발 긴급 티켓 예약 발권 가능  
대표 : Theresa Myoung Soon Lee M. 0413 110 216

영양돌솥전문점

**북창동 순두부**

**9868 4300 박만원 (토마스)**  
10/74 RAWSON ST, EPPING

**글로리 병원**  
Glory Medical Centre

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 MBBS(Syd), FRACGP  
원장 **이욱배 / Dr U.B. Lee**

Mon - Fri 9am - 6pm / Sat 9am - 1pm  
18 Bridge St, Lidcombe  
**T.9649 3333 F.9649 3366**

**Oh-My**

오-마이 김밥

파티, 결혼 및 장례 음식

el 9718 1118 / Mob 0416 209 750  
594 Canterbury Rd. Belmore

아이씨 안경원  
**i see OPTICAL**

정밀한 시력검사  
최상의 고객만족  
각종개인보험 즉석처리

녹내장, 망막 황반변성, 백내장, 시야검사  
당뇨 환자의 눈검사, 어린이 시력진단  
렌즈수술 전문의 권의서,

한국인검안사 6명근무  
**T 9858 3886** 116 Rowe St Eastwood 2122 (미라식당옆)

**삼성한의원**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원장: **강 성후**(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진료안내 및 예약 **9746 3537**

▶ Strathfield 본원 -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 Lidcombe 분원 - 1-3 Mary St Lidcombe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대호여행사**  
EASTWOOD

김기남 마리아나 이스트우드 9874 3311  
Mobile 0414 433 611

대한항공 판매 대리점, 아시아나 즉석발권  
전세계 항공 예약 및 호텔 판매



# 한국 순교자 124위 복자 시복

[한국천주교회 시복 청원자 125위 명단]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 청원 안전이 교황청 시성성 신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복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성성은 지난해 4월 26일자 교령을 통해 한국교회 제2차 시복 사업 통합추진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진행돼 온 시복 심사는 시성성 추기경 회의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놓았다.

따라서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 교구에서 열리는 열리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교황님의 방한을 신청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을 당초 10월에서 두 달 정도 앞당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순교성지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대전교구와 서울교구의 마포구(절두산), 용산구(새남터), 중구(약현성당), 종로구(옛 포도청자리)는 전 세계의 가톨릭 방문객을 맞을 준비로 분주하고 이와 함께 서소문역사공원 내 천주교 성지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복으로 124위가 복자에 오르면 다시 성인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1984년 103위의 성인을 배출한 한국 가톨릭에 또 다시 큰 경사가 된다.

증거자로 표시된 최양업 신부는 한국의 두 번째 사제로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함께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다. 그 후 사제품을 받고 귀국하여 10여 년간 초인적 노력으로 사목을 하신 분이다. 신부님은 박해를 피해 전국의 심산유곡 등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을 방문하며 9만 리 정도의 긴 여정의 사목을 하다 과로와 병으로 돌아가셨다.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명한 순교자는 아니지만 맘의 증거자로 한국 교회가 성인으로 모셔야 할 훌륭한 사제이다.

그러나 최양업 신부의 경우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복을 위한 ‘기적심사’가 별도로 요구되어 이번 시복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교자 124위 팔호 안의 순교 연도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1821-1861년)		
순교자 124위 팔호 안의 순교 연도	신해박해(1791)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을묘박해(1795)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지항 시바
	기미박해(1799)	박취득 라우렌시오, 방프란치스코, 원시보 야고보, 정산필 베드로
	경신박해(1800)	배관겸 프란치스코, 인연민 마르티노, 이보현 프란치스코
	신유박해 (1801, 1802) 53위	1801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윤지현 프란치스코, 유중철 요한, 유문석 요한, 현계흠 바오로, 최창현 요한, 홍낙민 루가,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윤운해 루치아, 최인철 이나시오, 윤유오 야고보, 정복해 칸디다, 정철상 가롤로, 한정흥 스타니슬라오,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강완숙 골롬바, 김현우 마태오, 윤점해 아가다, 정순매 바르바라, 김이우 바르나바, 김종교 프란치스코, 홍필주 필립보, 김광옥 안드레아, 김정득 베드로, 한덕운 토마스, 원경도 요한, 최필제 베드로, 이국승 바오로, 조용삼 베드로, 이중배 마르티노, 김천애 안드레아, 최여겸 마티아, 한신애 아가다, 이현 안토니오, 김연이 율리아나, 최필공 토마스, 최창주 마르첼리노, 정인혁 타데오, 심아기 바르바라, 강경복 수산나, 문영인 비비안나, 주문모 야고보 신부
		1802 이순이 루갈다,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정광수 바르나바, 유중성 마태오, 이경도 가롤로, 황일광 시몬, 홍인 레오, 홍익만 안토니오, 손경윤 제르바시오, 김사집 프란치스코, 김계완 시몬
	을해박해(1815) 13위	1802 김시우 알렉시오, 이시임 안나, 김강이 시몬, 고성운 요셉, 고성대 베드로, 김희성 프란치스코, 구성렬 바르바라, 김하춘 야고보, 김중환 안드레아, 김윤덕 아가다 막달레나, 김진후 비오, 최봉한 프란치스코, 서석봉 안드레아
	기묘박해(1819) 2위	조숙 베드로, 권 데레사
	정해박해(1827) 12위	1827 이경언 바오로, 박경화 바오로, 김세박 암브로시오
		1835 안군심 리카르도
		1839 이일언 욕, 신태보 베드로, 이태권 베드로, 전태봉 베드로, 김대권 베드로, 이재행 안드레아, 박사이 안드레아, 김사건 안드레아
	기해박해(1839) 10위	안군심 등 아홉 분은 정해박해 때에 사학죄인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안군심은 8년 후인 1835년에, 이일언 등 여덟 분은 12년 후인 1839년(기해년)에 순교했다. 교회사는 순교연대와 관계없이 이분들을 정해박해의 희생자로 정리하고 있다.
	병인박해(1866) 19위	이성례 마리아, 이봉금 아나스타시아, 홍재영 프로타시오, 최해성 요한, 심조이 바르바라, 최 바르지타, 최조이 바르바라, 김조이 아나스타시아 이조이 막달레나, 오종례 야고보
		1866 오반지 바오로, 신석복 마르코, 김원중 스테파노, 장 토마스, 구한선 타데오
		1867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정찬문 안토니오, 박상근 마티아, 송 베드로, 송 베네딕토
	기타 3위	1968 이 안나, 이정식 요한, 양재현 마르티노, 이양등 베드로, 김종륜 루가, 허인백 야고보, 박 프란치스코, 오 마르가리타, 박대식 빅토리오
		원시장 베드로(1793년), 이도기 바오로(1798년), 윤봉문 요셉(1888년)

**패밀리 데이 케어**  
Croydon • Newington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공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 놀이를 통한 신나고 재미있는 한글 교육 및 영어 교육
- ★ 가계,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요, 수, 과학, NIE
- ★ 음악 · 미술과 함께하는 통합교육
- ★ 간식 / 점심 제공 센터링크 보조(CCB,CCR)

대상연령 3세~취학전 아동

전화 문의: 0422 647 515 (Croydon)  
0425 234 130 / 9648 2786(Newington)

**NOBLE KIA TOYOTA SUZUKI**  
Chullora / Greenacre

한국인 컨설턴트

**에릭 리**  
사도요한

- ★ 무료 Road Side Assistance
- ★ Capped Price Servicing
- ★ 첫 3개월 무료 서비스
- ★ Noble 8year Warranty
- ★ Conditions apply

★ Special Finance Offer 진행중

0498 888 009 elee@noblekia.com.au  
8756 9871(직통) 121 Hume Hwy Chullora

**AECO DENTURE CLINIC**  
에코 틀니 전문 클리닉

Dental Prosthetist 이상현 안토니오

“정성을 다해 틀니를 제작해 드립니다.”

전체/부분 틀니  
부서지거나 손상 된 틀니 수정/교정  
헛걸거나 맞지 않는 틀니 수정/교정

예약 전화 9874 1099, 0407 380 390  
주소 1/19 Rowe Street Eastwood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병원” 성모치과의 약속입니다.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다.드림 Outlet**

아동복 빅사이즈  
여성캐주얼 미씨캐주얼

185 Beamish St Campsie  
Mob: 0414 588 700 (박 멜라니아)

호주 청정우·화환 한국택배 전문업체

**동서유통(벨모아)**

원하시는 부위를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전지역  
꽃배달

경 조사용 꽃 배달 서비스 실시!!!

동서 유통 이수룡 다니엘 070 7884 7560

(동서 정육점 직영)  
351A BURWOOD RD.  
BELMORE 2192  
T. 9750-2694  
M. 0425 213 503

**NEWBORN NB**  
BUILDING & CARPENTRY

신축, 증축, 실내 인테리어, 샵피팅  
파골라, 데크, 마루 시공, 화장실 레노베이션, 페인팅  
간단한 핸드맨일 문의도 환영

ABN : 35 189 753 315 / LICENCE NO : 2579988C

M 0430 379 269 M 0421 073 706

General Carpentry / Maintenance / Repair / Basement / Shop Fitting  
Remodeling / Owner Builder Assistance & Renovation  
Patio & deck / Bathroom / Kitchen





지구합회 소식

## ‘형제, 자매들이여 늘 오늘만 같아라!’

시몬11지구 새해 단합대회 ‘우리는 하나다’ 합창 및 안드레아 2지구 신년모임

모처럼 그리 덥지도 않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 그 자체가 주님의 축복이었다. 11지구 6구역 식구 100여명이 지난 주일인 19일, 실버워터의 강변 공원에서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새해 단합대회를 가졌다. 2년 임기가 끝난 전임 지구장과 새로 임명된 새 지구장, 구역장을 비롯 구역 식구들이 가족 단위로 나와 십시일반으로 들고 나온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즐겁고 풍성한 주일을 즐겼다.

이날 11지구 단합대회에는 그동안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구역 모임에 소홀히 했던 형제, 자매들이 대거 출동해 새로 출발하는 11지구 지구장과 구역장들에게 덕담을 건네며 시종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김동규 주임 신부님, 정영수 사도 요한 총회장, 서석태 스테파노 지구 협의회 회장이 단합대 회장을 찾았다. 김 신부님은 “새해가 됐으니 지구별 소공동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임 지구장, 구역장을 중심으로 힘을



▲ 11지구 새해 단합대회에 100여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여하여 율놀이를 했다.

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성어린 선물도 건넸다. “새해가 됐으니 모두 새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해 11지구가 가장 모범이 되는 시몬 공동체로 만들자.” 형제 자매들은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며 올해가 청마의 해만큼 부지런히 달려 건강한 가정, 화합하는 소공동체를 통해 더 진일보하는 한인 성당을 만들어가는 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율 놀이 판이 벌어졌다. 전임 지구장인 박병태 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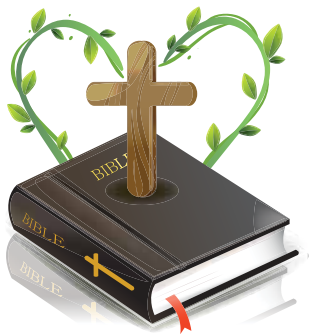
시오 형제가 주심이 돼 6구역이 토너먼트로 치열한 접전 끝에 1, 4구역이 우승을 차지했다.

소속 구역의 사랑이 지나쳐 주심에게 애교어린 심판결정 불복이 있었으나 순명의 정신으로 승복하는 등 웃음꽃이 만발했다. 모임이 파할 무렵, 최연희 엔젤라 신임 지구장이 전임 박병태 이나시오 형제에게 ‘댕큐’카드와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해 구역 식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왔다.



### 안드레아 2지구 신년모임

제 2지구 안드레아지구(지구장: 윤경면 미카엘)에서는 2014년 1월 10일 오후 지구 관내에 위치한 스트라스필드 골프클럽에서 50 여명의 지구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새해 소공동체 신년모임을 가지고 음식과 대화를 나누며 소공동체 안에서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 소리로 듣는 본당 가톨릭신문

본당 홈페이지 자료실에 “소리로 듣는 가톨릭신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극히 아마추어적이고 미흡하지만 확인하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복음말씀을 영어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 미디어 편집국 -

### 유아세례식 2월 22일 오후2시

(부모면담: 2월 19일 저녁 7:30분 미사 후)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 상태와 정도를 살펴 자녀에게 베푸는 교회의 특전입니다. 따라서 부모

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빠른 시간 내에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첫 영성체 교리시작 2월 15일부터

부모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에게 하느님을 알도록 교육하고 성체성사를 받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영성체 교리를 시키고 성체를 모시게 함으로써 유아세례의 실제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첫 영성체를 준비시키지

못하면 씨앗을 심어놓고 돌보지 않아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인 자녀가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의 자녀로 성장하여 성체를 모시는 것은 가정에 더 없는 기쁨이며 은총입니다.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공관대 법대졸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보상관련(교통사고, 직장사고, 공공장소사고등),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등  
가족법(이혼, 재산분쟁, 자녀양육, 유언장), 파산법(회사청산, 개인파산)  
부동산 & 비즈니스매매, 상가 임대차, 각종계약서, 주류라이센스  
Suite 124, Level 6, 330 Wattle st Ultimo  
**T 9281 1771, F 9281 1774**



Healthier choice for Healthier Living  
**신선 자연건강식품**  
HealthPlus  
**MEKEN**  
버우드 본점 Tel: 02 9744 7000 / 226 Burwood Rd, Burwood NSW 2134  
시티 전시장 Tel: 02 9264 5200 / Shop 10, 324 Pitt St, Sydney NSW 2000

**제일종합금융**  
Cheil Finance  
홀론 · 비즈니스론 · 상업용자 · 건설용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에pping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스/트/우/드  
**하나식품**  
모든 식료품, 신선한 과일과 야채, 친절할 서비스  
- 박정철 요한 -  
**Tel: 9874 1581** 27 Railway Pde, Eastwood

**제이원 보석**  
J.W.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반지 등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금 매입합니다.  
**T. 9763 1355 M. 0423 672 553**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 “드는 자와 나는 자”

2014년 1월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 본당에서도 새롭게 드는 자와 나는 자들이 있었으니, 새 마음 새 각오로 용감하게 그 직분을 위임 받은 신임 지구장들과, 이제 막중한 부담감에서 벗어난 밝은 얼굴의 전임 지구장들이다.

이 상반된 입장의 그러나 진정 하나되어 일치의 마음을 가진 전임과 신임 지구장들을 올해 첫 지구협회 전체회의에서 만날 수 있었다. 약간 상기된듯한 얼굴로 아직은 지구장의 자리가 어색하여 멧쩍은 웃음을 짓는 신임 지구장들은 회의내용을 열심히 메모하는 반면,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이었던 전임 지구장들도, 신임 지구장에게 정식 임임 후 일어서서 나갈 때의 얼굴에서는 섭섭함과 아쉬운 표정들

도 함께 읽을 수 있었다. 앞으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신임 지구장에게는 각오를, 직분을 마친 전임 지구장에게는 소감을 들어보았다.

전임 지구장을 대표하여 한진수 바오로 형제는, 임기 내에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젊은 엄마들의 신앙생활 향상을 위한 육아방 및 놀이터 영역 확대, Drop-zone 설치 및 육아교사 모집 등은 봉사의 뿌듯함을 느끼게 한 성과라고 말하였다.

신임 지구장을 대표해서는 윤경면 미카엘 2지구장이, 앞으로 각 지구내의 구역장들이 지구장의 활동에 감탄과 미안함을 자아낼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각오를 단단히 하겠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구협회 서석테스테파노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각 신임지구장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지구장은 하느님 나라 건설에 중요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할 봉사자로서의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사목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지구 소공동체 협의회는 12사도 72구역 소공동체로 구성되어 구역모임과 쉬는 교우, 환자, 행불자, 조당자, 전출입자 파악 등 교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으며 본당의 건의사항, 애경사 보고 등을 함으로써 본당과의 교량역할을 하며, 선교대상자 파악, 입교권면 및 예비자를 돌보며 지구, 구역별 신심 및 단합 활동 즉, 미사봉헌, 판공성사, 공동봉사활동, 성지순례, 단합 등을 통해 지구장들은 가장 앞장서



서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느님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도 쉽게 나서지 않는 어려운 봉사의 길을 스스로 수락하신 모든 신임 지구장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2년동안 봉사 할 지구장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귀중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보답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구협회 김미이 에밀리아)



## 생활의 5가지 원칙

시간을 지키자	시간의 2대 계명은 아끼고 잘 지키자 이다. 시간은 매매불가, 저축 불가한 인생의 소중한 자본이다. 만일 네가 너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여라, 왜?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서를 지키자	질서는 하느님의 창조법칙이요 인간생활의 기본윤리와 도덕이다. 질서는 곧 문명생활의 초석이요 현대과학의 원동력이다.
분수를 지키자	사치와 낭비는 패가망신의 기초이다. 자기가 처해있는 형편과 사정에 맞게 검소한 마음과 절약하는 정신으로 자기분수를 지키며 매사를 현명하게 처리하자.
약속을 지키자	인간만이 약속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인간세상에는 무수한 약속이 존재한다. 하느님과 인간의 약속, 부모와 자식의 약속,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약속들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들은 무효가 되고 당사자는 신용이 타락하여 삶의 낙오자로 전락하게 된다.
예절을 지키자	1. 예절은 인간의 기본 인격이요, 사회생활의 윤활유요, 인간관계의친화력이다. 2. 예절은 남에게 경의(敬意)·호의(好意)·사의(謝意)·축의(祝意)·애의(哀意)를 표시하는 마음의 행동이다. 3. 예절의 기초는 남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정중한 인사로부터 시작된다. 4. 예절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기본이다. 5. 예절은 남에게 불쾌감과 혐오감과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6. 예절은 사회질서의 으뜸가는 행위의 규범이다.

(경의: 존경, 존중의 마음 respect, high regard / 호의: 친절, 좋아하는 마음, 관심 kindness, goodwill, concern, interest / 사의: 감사의 마음 gratitude / 축의: 축하의 마음 congratulations / 애의: 슬픈 마음 sad, sorrow, heartbroken)

**SDT**  
시드니일일관광

**시드니 일일관광**  
포트 스테판, 블루마운틴,  
시드니 시내관광  
멜번, 케언즈, 뉴질랜드 남섬 등



**8214 8822** G Floor 302 Pitt St, Sydney  
**0411 457 222** 김예환 스테파노

**다이아몬드생수**

“맹그로브 마운틴의  
천연 심층 암반수”  
물은 물맛이 알겠습니다!

**15리터  
\$9.90**  
Cooler  
대여해 드립니다.

**0416 100 499 / 0404 044 117**

**WISDOM EDUCATION**  
OC, SELECTIVE & HSC SPECIALISTS

✓ Primary School subjects,  
✓ High School subjects &  
✓ HSC subjects

**TERM2에 등록하시면 매학기마다  
20% 할인**



Tel: (02) 8710 3466 | 3 John St, LIDCOMBE  
www.WisdomEducation.com.au  
\*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타스마니아로 오세요**

공항 픽업 부터 관광 숙박 식사 까지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단체, 피정환영

**0400 876 663**  
**03 6273 1162** 홍 순기(다니엘)





# 살아 숨쉬는 공동체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루카 2,22-40

## | 질 문 |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 하느님께 내가 봉헌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 자녀들의 유아세례나 첫 영성체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봅시다.

35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 가족, 친척, 이웃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까?

37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 | 목 상 |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시메온의 노래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바치는

시간전례인 성무일도의 끝기도에 포함되어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면서 봉헌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준다. 주님의 봉헌으로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된 하느님의 구원이 이제는 우리 삶의 봉헌으로 매일 구현되기 때문이다.

의롭고 독실하게 살았던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을 찬미했듯이, 우리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령을 청할 때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당신 뜻에 충실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어여뻐 보시고 하느님께서 베푸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더해질 때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미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식별하기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한다. 한나 예언자도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공생황을 펼치시는 동안 수없이 기도하셨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새워 기도하셨다. 기도의 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다.

30년을 기다리신 예수님은 3년간 공생황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며 바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일생동안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생활

을 해야겠다. 그럴 때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말씀처럼, 주님께 봉헌된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의 영육도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월 9일 연중 제5주일  
마태 5,13-40

## | 질 문 |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따름이다.”

→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연스레 알게 된 선행을 나누어 봅시다.

\*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 근처의 암염을 물에 녹인 후 염분이 함유된 깨끗한 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들었다. 그때 소금기가 빠지고 남은 찌꺼기는 길에 깔아 미끄러움을 방지하기도 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서 이 이야기의 소재를 얻어 사람들에게 의해 밟힌다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루카는 그것이 되비로도 쓸모가 없다고 함으로써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하여 이스라엘은 이미 하느님의 빛을 가린 ‘짠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소금이 짠 맛을 잃은 것과 같다.

(출처: 예루살렘 성경공부- 사목 기획국)

## | 목 상 |

마태오 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참 행복”을 선언(연중 제4주일 복음)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명(연중 제5주일 복음)을 부여하신 다음, 율법의 근본정신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의 완성(연중 제6주일 복음)을 이루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원수까지도 사랑(연중 제7주일 복음)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부여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녹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풍파에 휩쓸리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금의 짠맛과 일정한 밝기의 빛을 유지하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즐거움은 그때뿐이라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게 만든다. 반면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고,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이끌어주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만연한 부패와 어둠을 몰아내도록 만들어준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당신과 멀어지는 역사의 반복이었다. 하느님께서 그때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계명에 충실하도록 일깨워주셨다. 그래도 변화가 없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율법을 완성하셨다. 앞으로 2주간 동안 우리는 사랑의 새 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을 일

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하는지 묵상해보겠다.

2월 16일 연중 제6주일  
마태 5,17-37

## | 질 문 |

24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 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사 참례를 하여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나 형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 불이익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옳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 나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 | 목 상 |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이는 구약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일상 속에서 그 근본정신을 되새기라는 뜻이다. 곧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

### 에핑건강식품

각종 꿀, 각종 건강식품  
각종 화장품, 양모 제품 및 호주 토산물

9876 8282(팔리팔리) / 9876 6071  
0404 070 338(24시간)  
15 Bridge St. Epping 에핑역 2분거리

###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 마리아 머리방

에터미 회원님들께는 특별할인을 해드립니다

〈꼭 예약바랍니다〉

Tel: 8084 8417 / Mob: 0430 477 723  
12 Edgar St., Eastwood

### 신개념 운동 재활병원

김스 헬스케어 클리닉

치료 마사지 / 운동 물리치료  
체중 관리 / 다이어트  
소그룹 운동 / 퍼스널 트레이닝  
뷰티 트리트먼트

WWW.KIMSCLINIC.COM.AU

스트라스필드 9764 1088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4층  
이스트우드 9858 2200 Level 2, 29 Rowe St. Eastwood

### 리드컴 안경원

다양한 제품  
친절한 서비스  
최신 신상품

최신식 설비에 의한 정밀 시력검사  
Medicare 및 개인보험 이용가능

9643 1000  
11 Joseph St, Lidcombe NSW 2135  
(중앙식품 맞은편, 해피마트 옆)

### 의전 홈플러스

의류, 주류, 토산물, 건강식품, 식품, 생활용품

블라인드 & 커튼 사업부 : 블라인드, 커튼, 벽지

무료 견적, 직접생산, 빠른시공

Tel ; 9742 1188 / Mob. 0400 11 8282  
49 - 51 Punchbowl Road, Belfield

### 김상진 회계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 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 리드컴 제과점

Joseph's Bakery

10 Joseph St. Lidcombe (중앙식품 옆)  
8084 8580 0431 523 157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 충실하게 머물라는 것이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첫 번째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하여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의 화해를 이루라는 것이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두 번째로 “간음해서는 안 된다.”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는 혼인의 본질적인 특징인 불가 해소성(不可解消性)을 드러낸다. 그러기에 “혼인의 유대는 하나님의 뜻과 자연법에 따라 배우자 한편이 죽을 때까지 풀릴 수 없다”(교회법 제1056조 해설 참조)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부의 정결은 배우자를 향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부부의 정결은 이미 깨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는 상대로 하여금 자기 말을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는 안 되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맹세는 하나님을 흠숭하기보다, 자신을 들어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월 23일 연중 제7주일  
마태 5:38-48

## 질문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 보복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여 기쁨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 기도로서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과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 해 봅시다.

48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비폭력으로 폭력에 맞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으로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며 이웃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다. 그러기에, 신앙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이렇듯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근본정신을 따르면서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직장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다양한 취미나 여가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어긋남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신앙인이라면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도 원하는 모습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도 안에서의 성찰은 자연스럽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런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몸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 물론 달아도 통증이 느껴지듯이,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도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통증이 전해져온다. 그래서 상처가 클수록 더 많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관계 속에서 부딪칠 때마다 가슴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런 이겁니다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문답

1. ‘예수’는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서,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역사상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나타낸 말이다)

2.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 집을 떠나 베들레헴에 갔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요셉의 조상이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 다윗 성왕.

3.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의 인도를 받아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을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며 경배하였다. 이 날을 기념하여 교회 전례력은 어떤 축일을 지내고 있을까요?

☞ 주님 공현 대축일.

4. 예수님의 공 생활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후 전도를 시작하시며 제일 처음 외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마태 4, 17), “때가 다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

5.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다고 했을까요? 두 가지로 답해 주세요.

☞ 겨자씨와 누룩.

6. 나자렛에서의 첫 설교에서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 밝히신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

어 묵인 이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나와있는 예언서는 무엇일까요?

☞ 이사야 예언서.

7. 복음은 두 번의 장엄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직접 예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한 번은 어느 순간에서였을까요?

☞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

8.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 중의 한 명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한다. 이 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 주님의 기도.

9. 예수께서는 하늘에 맞아들여질 날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신다. 이 결정은 예수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임을 밝히셨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당신의 수난에 대한 예고를 몇 번에 걸쳐 하신 것으로 나와 있을까요?

☞ 3번.

10. 죽음의 때가 다가 왔을 때,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당신의 도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군중들은 예수께서 구원을 가져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면서 겔옷을 벗어 길에 퍼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함으로써 장엄한 성주간을 시작하는데, 교회 전례력에서는 이날을 어떤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을까요?

☞ 주님 수난 성지주일.

11. 예수께서는 당신이 잡히시던 날 밤에 열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 최후의 만찬을 당신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해 성부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헌의 기념일로 삼으신다. 그렇다면 이 최후 만찬을 통해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는 무엇일까요?

☞ 성체성사.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예담**  
Ye Dam Rice Cake 禮

- 떡케익
- 영양떡
- 이바지/페백
- 달래떡
- 일반떡
- 선물세트

20년전통의 손맛 그대로~ 정성스럽게 빚어 만듭니다.

**02 9740 5057**  
745 Canterbury Rd Belmore NSW

**Silverwater POWER GOLF ACADEMY**  
실버워터 파워 골프 아카데미

JONG GAP KIM 김중갑 마태오  
Unit 2/47 Vore St, Silverwater NSW 2128  
T 02 9748 0002  
M 0412 108 340

**first national**  
REAL ESTATE | Strathfield

**2013년 말 완공 예정의 좋은 투자 기회**  
한 주택 두 가구!!  
최대 7.6% 연 임대 수입 예상  
전액 Stamp Duty 면제 (\$600,000 이하)  
한인성당 도보 2-3분 거리

대표 권기향 **0432 379 972** 대표전화 **(02) 9764 2999**

**삼성모터스**

All Mechanical Services & Repairs  
Pink Slip  
Blue Slip  
LPG Inspection  
RTA 등록 □ 무료 대행  
Green Slip

**Since 1989**

**TEL : 02 9683 1045**  
Unit B7/23-25 Windsor Rd. Northmead





## 나는 괜찮습니다

고요히 타 오르는 촛불 속에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가슴으로만 울어야 하는  
또 다른 아픔을 앓는  
어느 사제의 고뇌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에고이스트 한 우리의 사랑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관념적 이고  
편집증적 집착으로 인하여  
사랑은 그렇게 무너진 성벽 벽돌 위에  
부질없는 세월의 흙 먼지만 날리고 있다

해질녘 황혼의 먼 산을 쳐다보며  
마르지도 않을 눈물을 흘리는  
슬픈 사슴의 눈 빛으로  
허공을 쳐다보듯 먼 곳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사제의 음성에는  
그 사슴의 눈물이 배어 있었다.

그 말에 내 가슴 어디선가  
툭! 하고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어둡고 깊디 깊은 동굴 속 어디선가  
천 년에 천 년을 매달려있는 종유석,  
그 끝의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듯  
천 년에 또 다른 천 년을 기다려온  
실로암 같은 눈물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떨어진다

그는 그렇게 소리도 나지 않는 울음을 울며,  
술하게 많은 날  
베드로의 새벽 닭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이다  
여명의 아침을.

견디기 힘든 인간적인 모멸감과 치욕,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몸서리 치면서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사랑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도와달라고  
눈물로 청하고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었을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절규하는 예수의 마지막 모습처럼  
사제의 그 밤들은 어느새 기도가 되고  
기도의 밤들은 어느새 백야!  
그렇게 하얀 밤이 되어  
그는 어깨 위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 놓는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십자가 그 아래서.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사제의 밤은 그렇게 불면의 하얀 밤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의 밤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얗게 말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만다” 는  
소화 데레사 성녀의 말을 생각해 본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한 그의 말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이천 년 전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오버랩 되어  
오래,  
아주 오랫동안 때아리 쳐 울린다  
“나는 괜찮다고 돌아 오라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 이라고.....”

진정 용서와 화해  
그 대단원의 막을 올린 한 마디,  
“나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용광로 속에 녹아난,  
별진 쇳물보다 더 뜨거운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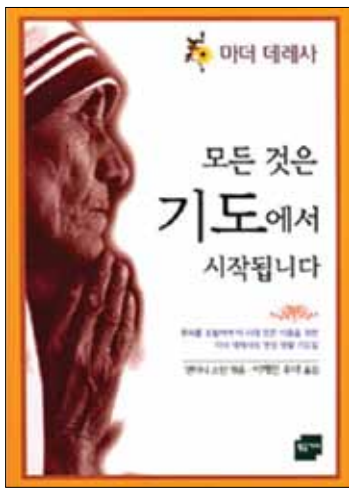
사랑! 그 말이 아니고서야 달리  
설명 할 수 없는 말  
“나의 율음을 주장하기보다는  
모두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고 말한  
어느 젊은 스님의 말을 덧붙이며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찬란한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잔”  
그 것이었다

진정 우리는 그렇게 말할 용기와  
우리의 작은 이익과 불편 앞에서  
얼마나 자주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았을까 돌이켜 본다  
나의 삶 나의 가슴속에 언제까지고  
내 마음에 화석으로 새겨져 있기를 ...

“나는 괜찮습니다” 그 말은 곧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 이었다

(Vincent s d Kim)



##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다. 기도의 ‘달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흔히 돌아오는 대답이다. 마더 데레사 역시 같은 대답을 했다.

“기도란 우리가 하느님께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이야기하면 그분은 듣습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지요. 기도란 양쪽이 다 듣는 것, 양

쪽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비우면 비울수록 하느님께 내어 드릴 자리가 넓어진다. 마더 데레사는 “자신이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겸손의 상태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곳에선 기쁨과 사랑이 자라난다.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이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깊은 감사 안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데레사 수녀는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만, 사소한 일을 즐기는 이들은 별로 많지 않다”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넓고 귀하게 보신다”고 강조했다.

“잘 놀았습니까? 잠을 잘 잤습니까? 밥을 잘 먹었습니까?”라고 묻는 데레사 수녀는 “하느님 앞에서 사소한 것이란 없다”고 말했다.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수 7:30pm / 화 7am / 목 9:30am, 7:30pm / 금 9:30am / 토 9:30am (첫째주, 둘째주)
- 기 타 : 매 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캄시(9:30am)에서 성당까지 셔틀버스 운행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bush  
Website [www.hbmusic.com.au](http://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mailto: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공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HB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밴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실력이 있는곳에 세가기가 몰려온다!  
**한진IT**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키폰,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

**TRUE ROSES**  
각종 화환 / 웨딩전문  
Shop 19/222-230 Church St, Paramatta  
**9633 1616**  
**0423 832 854**